

광주 지역내총생산·전남 개인소득 최저

2017년 광주 지역내총생산 세종·제주 빼고 가장 낮아 1인당 개인소득 전남 1704만원 꼴찌...광주 1893만원

광주-전남이 '지역내총생산' '개인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2017년 광주 지역내총생산은 세종·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 1인당 개인소득은 꼴찌였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통계 2015년 기준 개편결과'에 따르면 2017년 지역내총생산(명목)은 광주 37조7000억원, 전남 73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1840조3000억원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1조4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서울(404조원), 충남(115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세종(10조원), 제주(20조원)를 빼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1인당 주요 지표'도 위태로운 지역경기를 반영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광주가 2524만원으로 대구(2231만원)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전국 평균 3583만원

의 70% 수준으로, 전남은 평균의 114% 수준(5위)인 4108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지역은 울산(6537만원), 충남(5366만원), 서울(4137만원) 등이 있었다.

1인당 개인소득 부문에서는 전남이 '최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남 개인소득은 1704만원으로, 전국 평균 1920만원의 89% 수준이었다.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2224만원으로, 전남보다 520만원 많았다. 광주 1인당 개인소득은 1893만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전남은 소비 부문에서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전남 1인당 민간소비액은 1496만원으로, 전북과 함께 가장 낮았다. 광주는 1인당 1705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평균(1700만원)을 웃돌았다.

실질 지역내총생산으로 본 경제성장률은 광주-전남지역 모두 평균(3.1%)을 밑도는 1.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6%로 가장 높았고 충북과 충남이 각각 6.1%, 5.4%를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



기록했다. 경북(-1.2%), 경남-울산(-0.7%) 지역은 '마이너스(-)'대 성장률을 보였다.

지역의 부진한 경제지표는 빈약한 투자

성과와 연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투자·설비투자·지식재산생산물자를 합한 총고정자본형성(명목)은 광주가 9조5000억원으로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체 총고정자본형성(579조9000억원)의 1.6% 수준으로, 1위인 경기(158조4000억원)와 148조9000억원이나 차이났다. 전남은 전국 10위인 24조7000억원이었다.

2017년 광주지역 생산구조는 기준연도인 2015년과 비교해 제조업 비중이 28.5%에서 28.2%로, 건설업은 4.8%에서 4.3%로 줄었다. 대신 사업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비중은 65%에서 66%로 확대됐다.

전남의 경우 농림어업 비중은 8.4%에서 7.9%로 감소한 반면, 제조업 비중은 34.1%에서 36%로 확대됐다. 제조업 확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과 전기·전자·정밀기기 제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번 집계는 지역 소득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반영한 결과다. 종전 집계와는 달리 2012년 새로 탄생한 세종을 따로 분류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04.75 (+16.22) ↑ 금리(국고채 3년) 1.26 (+0.02)
- ↑ 코스닥 632.99 (+3.68) ↓ 환율(USD) 1200.20 (-8.00)



박석현(가운데) 청장 등 광주국세청 임직원들은 5일 무등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광주국세청 제공>

근로·자녀장려금 오늘까지 지급

광주국세청, 60만가구에 6628억

광주지방국세청은 추석 연휴 전인 6일까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6628억원을 60만2000가구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북지역의 근로·자녀장려금 5월 정기 신청가구는 총 73만5000가구(신청액 8221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59만6000가구(신청액 6894억원)이고, 자녀장려금은 13만9000가구(1327억원)가 신청했다.

지급 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6일까지 지급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오는 12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박석현 청장 등 광주국세청 임직원들은 5일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회와 송편을 함께 빚고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빚은 송편은 상인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 1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국세청 측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등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앞서 박 청장은 아동·노인 보호시설인 신애원과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동구 서남동에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조성 전국 7곳 선정 115억 지원

광주시 동구 서남동에 소공인 공동기반 시설이 들어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공동기반시설 설치 후보지 9곳을 선정, 국비 165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복합지원센터에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충남 공주 유구읍 등 2곳이, 공동기반시설로는 광주 동구 서남동, 경남 김해 진례면, 경기 화성 향남읍, 안양 관양동, 성남 상대원동, 대구 중구 성내동, 전북 순창 순창읍 등 7곳이 선정됐다.

복합지원센터에는 소규모 작업장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신소재나 샘플 제작에 필요한 특수·첨단설비가 설치돼 소상공인들이 3D 설계, 이미지 모델링 등 제품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장과 협업공간이 마련돼 소상공인들이 판로 확대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에 도전할 수 있다.

공동기반시설은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엔 선정된 7개 지역에는 국비 115억원이 지원돼 공용장비·시설, 공동창고, 작업장 등이 갖춰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소공인 2850개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모하비 더 마스터' 출시...SUV 왕좌 탈환 나서



기아차의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하비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산 SUV의 왕좌 탈환에 나섰다.

기아차는 5일 인천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모하비 더 마스터'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 판매에 나섰다. 2008년 출시 당시 '정의선의 차'로도 불린 모하비는 세대 변경 없이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만 거쳐 '사팔'이란 별명을 얻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사전계약은 영업 기준 11일 동안 약 7000대의 계약대수를 기록했다.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를 기준으로 플래티엄 트림 4700만원, 마스터즈 트림 5160만원부터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꼼꼼히 살피세요

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올해 광주·전남 피해 520건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 택배 관련 피해 건수가 25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최근 발령했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올 8월까지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피해 상담 건수는 항공 191건, 택배 252건, 상품권 77건 등 모두 520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광주·전남 항공 피해건수는 지난 2017년 254건에서 지난해 304건으로 19.6% 증가했다. 택배 피해는 571건에서 638건으로 11.7%,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 상품권 피해도 2017년 89건에서 지난해 106건으로 19.1%

증가했다. 올해 상품권 피해 건수는 모바일이 39건으로 일반 상품권 사례 건수(38건)를 앞질렀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에 거주하는 한 30대 여성은 '무안-블라디보스톡' 왕복항공권 2매를 구입했는데, 블라디보스톡 출발이 10시간 이상 지연됐음에도 안내가 적절히 되지 않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광주에 사는 50대 남성은 이달 만료되는 상품권(5만원 상당)을 사용하려 했으나 사용처가 대부분 폐업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해 소비자의원을 두드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